

2020년 5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민욱(044-201-2471), 사무관 한병윤(2472) / 제공일: 5월 27일(총 6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2019년 곤충 판매액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.1% 증가 - 2019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곤충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, 매년 곤충농가수, 사육면적 등 생산, 가공업체수, 곤충별 판매액 등 유통 및 체험학습장 및 생태원 수 등 산업기반 등에 대한 통계 조사·실시(행정조사)
- ◆ 2019년 곤충 판매액은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.1% 증가, 사료용·식용 곤충은 증가(특히 동애등에의 경우 전년대비 173% 증가), 학습·애완용 곤충은 소폭 감소
 - * 동애등에(사료용 곤충) : ('18) 2,193백만 원 → ('19) 5,988 (전년대비 ↑ 173%)
- ◆ 곤충업(생산·가공·유통) 신고자는 2,535개소로 전년 대비 (2,318개소) 9.4% 증가
 - * 곤충 종류별 생산농가 일부 중복
 - 생산업 1,155개소, 가공업 8, 유통업 148, 생산업·가공업·유통업 1,224로 전체의 48.3%가 두가지 이상의 곤충업 신고
 - 흰점박이꽃무지 1,265개소, 장수풍뎅이 352, 귀뚜라미 322, 갈색거저리 265, 사슴벌레 200, 동애등에 94 등의 순
- ◆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곤충 및 양잠 산업 육성 종합 계획('21~'25) 수립에 활용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‘2019년 곤충산업 실태조사’ 결과를 발표하였다.

○ 금번 실태조사는 곤충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·가공·유통업을 신고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'20년 2월~4월까지 실시하였다.

□ 2019년 곤충 판매액(1차 생산)은 405억 원으로 전년도(375억 원) 대비 8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곤충 종류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 189억 원, 동애등에 60억 원, 귀뚜라미 43억 원, 갈색거저리 28억 원, 장수풍뎅이 26억 원, 사슴벌레 13억 원 및 기타 47억 원이다.

○ 특히, 환경정화 및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지난해 보다 173% 증가하였고 3년 동안('17년 8억 원 → '18년 22억 원 → '19년 60억 원)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곤충업 신고자(생산·가공·유통)는 '19년말 기준 2,535개소로 '18년 2,318개소 대비 9.4%가 늘어났다.

○ 신고 유형별로는 생산업 1,155개소, 가공업 8개소, 유통업 148개소, 생산·가공·유통업 1,224개소로 전체 신고 건수중 48.3%가 두가지 이상의 곤충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
○ 지역별로는 경기 551개소, 경북 443개소, 경남 265개소 순이다.

○ 사육곤충 종류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 1,265개소, 장수풍뎅이 352개소, 귀뚜라미 322개소, 갈색거저리 265개소, 사슴벌레 200개소, 동애등에 94개소, 나비 23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다.

□ 사업 주체별로는 농가형 1,625개소(64.1%), 업체형(사업자등록 개인) 672개소(26.5%), 법인형(농업회사·영농조합 법인) 238개소(9.4%)이며,

○ 영업 형태로는 부업(전체소득의 50%이하) 1,096개소(43.2%), 주업(80%이상) 887개소(35.0%), 겸업(80~50%) 552개소(21.8%)로 나타났다.

□ 이밖에 곤충 산업 기반(인프라)으로 곤충 관련제품 판매장은 전국 289개소이며, 곤충 생태공원은 14개소, 체험학습장은 89개소로 조사되었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금번 실태조사 결과 식용·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는 감소했으나 판매액이 대폭 증가하여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,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곤충 산업 육성 종합계획(‘21.~’25.) 수립에 활용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◇ 조사 개요

- 조사방법 : 행정조사(지자체)를 통한 통계 작성(매년 3~5월)
- 조사내용
 - 생산통계 : 곤충농가수, 사육면적 등
 - 유통통계 : 가공업체수, 농가별·곤충별 판매량(판매액), 판매장 수
 - 산업통계 : 체험학습장 및 생태원수 등
- 결과 활용 : 곤충산업 육성 정책수립, 제품개발, 마케팅에 활용

□ (업 신고) 2019년 곤충 업 신고 농가·법인은 2,535개소로 '18년 2,318농가 대비 9.4%로 소폭 증가

- 생산업 2,368개소, 가공업 525개소, 유통업 1,338개소(일부 중복)
- 지역별 신고현황은 경기 551개소> 경북 443개소> 경남 265개소 순

지자체	계	경기 (서울· 인천)	강원	충북	충남 (세종· 대전)	경북 (대구)	경남 (부산· 울산)	전북	전남 (광주)	제주
○신고(개소)	2,535	654	120	226	297	469	301	229	196	43

- 곤충별 생산 현황은 흰점박이꽃무지 1,265개소 > 장수풍뎅이 352개소 > 귀뚜라미 322개소 > 갈색거저리 265개소 > 사슴벌레 200개소 > 동애 등에 94개소 > 나비 23개소 > 반딧불이 9개소 > 기타 89개소

□ (사업 주체) 신고자 중 농가형 1,625개소(64.1%), 업체형(사업자등록 개인) 672개소(26.5%), 법인형(농업회사·영농조합 법인) 238개소(9.4%)

- 부업(50%이하) 1,096개소(43.2%), 주업(전체소득의 80%이상) 887개소(35.0%), 겸업(80~50%) 552개소(21.8%)

□ (곤충 판매액) 흰점박이꽃무지 189억원 > 동애등에 60억원 > 귀뚜라미 43억원 > 갈색거저리 28억원 > 장수풍뎅이 26억원 > 사슴벌레 13억원(누에, 꿀벌은 제외)

* '18년 : 꽃무지 153억원 > 귀뚜라미 46 > 갈색거저리 27 > 장수풍뎅이 26 > 동애등에 22 등

○ 2019년 판매액은 405억원으로 2018년 판매액(375억원)에 비해 8.1% 다소 증가

○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 동애등에는 60억원으로 '18년 22억원에 비해 173% 크게 증가

□ (산업인프라) 곤충연구소 18개소, 곤충 생태공원은 14개소, 체험 학습장은 89개소

□ (곤충 축제) 함평나비축제, 무주반딧불이행사 등 16개소 134만명이 참여

참고 2 국내 곤충산업 현황

(단위 : 개소, 백만원, 명, %)

구 분		2016	2017	2018 (A)	2019 (B)	증 감 (B-A)	증감률 (B-A)/A
곤충업 사업체	생 산	1,261	2,008	2,180	2,368	188	8.6
	가공	44	422	499	525	26	5.2
	유통	818	1,088	1,209	1,338	129	10.7
	소 계 (중복포함)	1,597	2,136	2,318	2,535	217	9.4
1차 산물 판매액 (농가수)	장수풍뎅이	6,057 (221)	2,338 (415)	2,643 (425)	2,627 (352)	△16 (△73)	△0.6 (△17.2)
	사슴벌레	1,293 (104)	1,109 (158)	1,316 (160)	1,270 (200)	△46 (40)	△3.5 (25)
	흰점박이꽃무지	8,842 (337)	16,646 (1,195)	15,338 (1,305)	18,904 (1,265)	3,566 (△40)	23.2 (△3.1)
	갈색거저리	1,270 (91)	2,402 (282)	2,687 (291)	2,813 (265)	126 (△26)	4.7 (△8.9)
	동애등애 (기타포함)		848 (51)	2,193 (60)	5,988 (94)	3.95 (34)	173.1 (56.7)
	귀뚜라미	1,671 (32)	5,649 (384)	4,586 (399)	4,274 (322)	△312 (△77)	△6.8 (△19.3)
	기 타	3,382 (33)	5,510 (93)	8,743 (119)	4,654 (121)	△4,089 (2)	△46.8 (1.7)
	소 계 (중복포함)	22,514 (818)	34,502 (2,578)	37,506 (2,750)	40,530 (2,576)	3,024 (△174)	8.1 (△6.3)
인프라	체험학습장	81	87	90	89	△1	△1.1
	생태공원	12	13	13	14	1	1.1
	소계	93	100	103	103	-	-
곤충업 종사자수		1,821	3,194	3,341	3,609	268	8.0